**제망매가**

Şilla Hanedanlığı zamanında yazılmış 10 dizeden oluşan 향가.

죽고 사는 길은

여기 있음에 두려워하여

나는 간다는 말도

못 다 이르고 갔는가?

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

여기저기 떨어지는 나뭇잎처럽

같은 가지에 나고서도

가는 곳을 모르겠구나

아아, 마다찰에 만나 볼 나는

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